

고흥군, 천경자 작품 66점 결국 반환

기증 받은 후 관리 부실...2년간 갈등

미술작품 전문 관리 시스템 갖춰야

고흥군이 기증받았던 천경자 화백 작품 모두를 결국 되돌려줬다.

고흥군이 지난 2010년부터 기증 작품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작품 반환을 요구해온 천 화백 측과 갈등을 빚어온 지 2년 만이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 유산을 제대로 보전하기 위한 전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의욕만 앞세운 자치단체의 미숙한 문화 행정이 초래한 결과라는 점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고흥군은 26일 천경자 화백측과 작품 반환 합의서를 작성하고 천 화백측이 기증한 드로잉(55점)과 판화(11점) 등 작품 66점을 전부 돌려줬다고 27일 밝혔다. 양측은 또 '돌려받은 작품 상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교환했다.

고흥군이 애초 제안했던 '반환 작품들은 지난 2007년 고흥군에 기증할 당시 상태 그대로임을 인정한다', '고흥군 작품을 반환한 뒤에도 현재의 '천경자전시실'명칭을 사용해 홍보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조건 등은 제외됐다.

이로써 고흥군과 천 화백측의 작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2년여 만에 일단락된 셈이다.

고흥군은 지난 2007년 11월 1일 고흥군 종합문화회관 내 천경자 전시실(149㎡)을 개관하고 천 화백 작품을 전시해오다 천 화백측으로부터 2010년 11월부터 작품 반환을 요구받아왔다. 고흥군이 '양도받은 작품에 대한 선량한 관리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협약서 내용과 달리 관리를 허술하게 해 작품이 훼손됐다는 게 천 화백측

주장이었다.

예를 들면 작품에 손상을 입히는 할로겐 전구를 전시실에 설치하는가 하면, 청소용품을 놓아두는 창고에 작품을 보관하는 등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것 등인데, 미술·전시관 전시·기획에 대한 전문 지식 부재와 열악한 전시관 관리·운영 예산 등으로 빚어진 일이라는 게 문화계의 일반적 평가다.

하지만 고흥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다 지난 3월에야 반환을 결정했지만 이후에도 합의서 작성 등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실제 작품 반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 11월에는 천경자 전시실 옥상 물탱크가 파손되면서 작품을 인근 남포미술관으로 긴급히 옮겨놓는 등

한바탕 소동까지 빚어졌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전문적 미술 관리 시스템 부재로 국내 대표적 여성화가의 작품을 소장하고도 남도 문화 유산으로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데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 의욕만 앞세운 어설픈 문화 행정이 아닌, 우수한 남도 문화유산을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운영 방식 마련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편, 고흥군은 폐쇄된 천경자 전시실에 대한 보수·수리를 거쳐 지역 작가들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천경자 작 '꽃과 여인'

천경자 작품 올해 작품값 2배 올라

거래량 김환기·이우환·박수근 순

한국미술사가감정형 조사

미술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지역 출신 천경자 화백 작품에 대한 경매가격이 2배 이상 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경자·김환기·손상기·오지호 화백은 국내 주요 작가 가운데 평균 호당 가격이 높은 작가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재)한국미술사가감정형회가 월간 아트프라이스와 함께 K옥션, 서울옥션 등 국내 9개 경매회사에서 거래된 1만875점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2 주요작가 KS 호당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작품값이 가장 많이 오른 작가는 장승업(765.56%), 천경자(139.02%), 김홍도(125.24%) 순이었다.

국내 국·공립미술관 중 광주시립미술관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값도 지난해에 비해 4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근 화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



김환기 작 '가든'

군 호당가격이 가장 높은 작가로 꼽혔다. 박 화백의 평균 호당가격은 2억750만원으로 지난해(1억6000만원)에 비해 29.69% 올랐다. 이중섭 화백은 평균 호당 가격이 1억1160만원 수준으로 뒤를 이었고 천경자(3650만원), 김홍도(3080만원), 장욱진(2060만원), 김환기(1930만원) 화백 순으로 높았다. 지역 출신인 손상기(405만원·17위), 오지호(349만원·21위), 임치순(87만원·40위) 등도 평균 호당가격이 높은 작

가 50위에 이름을 올렸다.

작품 거래량의 경우 김환기, 이우환, 박수근 순으로 많았고 천경자, 손상기도 거래량이 많은 작가 10위 안에 들었다. 해외 작가로는 정관조(중국), 쿠사마 야요이(일본), 마르크 샤갈(프랑스), 장 샤오강(중국), 데미안 허스트(영국), 리우에(중

국) 순이었다. 낙찰된 작품 수량으로 보면 허건, 김기창, 허백련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 한 해 국내 미술품 경매사 9곳의 경매 결과, 총 작품 1만875점 가운데 낙찰 작품 수는 6940점(낙찰률 63.8%), 총 거래액은 891억8792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는 31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짝사랑'

유·스퀘어문화관 올 10만명 관람

공연·전시 200여건

클래식 전용홀 금호아트홀과 다목적 공연장 동산아트홀, 금호갤러리로 구성된 유·스퀘어문화관 관람객이 올해 10만명을 넘어섰다. 공연·전시 건수는 200여건이었다.

클래식 관들의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은 '2012 금호아트홀 스페셜리스트 시리즈', 정상급 연주자들의 공연을 저렴한 티켓으로 선보인 이 시리즈는 피아니스트 에드마우어 리사이틀, 권혁주·김다솔 듀오 콘서트, 박종화 피아노 콘서트, 노부스 파르티 콘서트 등이었다.

동산아트홀에서 'Good 공연 시리즈'로 진

행된 '발칙한 로맨스'(연극), '짝사랑'(뮤지컬), '바라바라'(개그쇼)는 총 94회 공연됐다. 특히 배우 김수로가 프로듀싱한 19금 연극 '발칙한 로맨스'는 34회 공연이 70%가 넘는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밖에 '그림일기, 그림일기'전 등 의미 있는 전시회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금호주니어 콘서트 출신들이 거둔 성과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출연자였던 최연호(서울대 대학원)씨가 베를린국제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입상했으며 김진한(서울대)씨는 상하이 국제콩쿠르 본선 무대에 올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통 & Asia' 겨울호 나왔다

인터넷신문 문화통(대표 지형원)이 발행하는 계간지 '문화통 & Asia' 2012 겨울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은 '전라도 떡'이다. 떡 만드는 사람, 떡시루 만드는 사람, 떡살 만드는 사람과 함께 반백년 역사를 이어온 창억떡집 이야기를 실었다.

문화통 '즉문즉답'에서는 왜 아무 연고 없는 광주에서 사나요?(피아니스트 한동일) 왜 광음악악회를 계속하나요?(정찬경 대표) 왜 옛 전남도청 사진만 찍나요?(다큐작가 김향득) 등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묻고 답을 들었다.

또 '전라도문화 수수께끼'에서는 전라도



김치의 비법을 다뤘으며 스페인 왕립국악원 출신의 기타리스트 서만재씨, 광주에 오페라 전용 소극장을 만든 최덕식·박미애 교수 부부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그밖에 '성공하려면 영화속 명대사'를 활용하라 등 다채로운 읽을거리가 풍성하다. http://www.mtong.kr/문의 062-226-1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KBS 클래식 FM, 베스트 월드뮤직 발매

KBS 클래식FM(93.1MHz)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세계 음악 33곡을 선별해 담은 음반 '한국인이 사랑하는 월드뮤직'을 발매했다고 27일 밝혔다.

음반에는 KBS 클래식FM이 지난 8월 국민 패블 62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베사메 무초'를 비롯해 '그라시아스 아 라 비다', '쿠루투쿠 팔로마' 등의 세계 음악이 담겼다.

KBS 클래식FM은 2008년 이래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악곡',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기악곡' 등 기획 음반을 제작·발표했다.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후원: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력단

무궁화호/무박 2일

태백산 눈꽃 하이원 스키장 곤도라 탑승 기차여행

출발일 1월 11일/18일/25일/2월 1일 (매주 금요일) 22:00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75,000원

여행코스 태백산 눈꽃 트래킹/ 석탄박물관/하이원 스키장 관광곤도라 탑승

정동진 일출 추암 촛대바위/하이원 스키장곤도라 탑승 기차여행

출발일 1월 11일/18일/25일/2월 1일 (매주 금요일) 22:00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75,000원

여행코스 태백산 눈꽃 트래킹/ 천제단/ 석탄박물관 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도라 탑승

아이엘리시아
최저 서비스 표준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성인1명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백1
[와인 or 생맥주 1잔]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